  

**개혁을 위한 세가지 지지점Fulcrum**

# 톰 트리니다드 Tom Trinidad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는 양조장의 뒤쪽 방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은 2005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성서문학 학회/미국 종교학회 연례회의에서 계획된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그리 대담한 주장을 듣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필리스 티클(Phyllis Tickle)은 500년마다 교회가 거대한 허풍을 팔았다는 기발한 주장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래된 형태의 사상과 실천이 새로운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티클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저서를 둘러싼 마지막 사이클에서처럼 그녀의 옆에 앉아있는 저자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화를 처음 듣던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개혁의 문턱에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과연 우리 가운데에 앉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있었기에 우리는 500번째 종교개혁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1513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Wittenberg)의 어느 신학 교수가 자신의 95개 주제를 주변 주교들에게 보내서 ("게시하여") 토론회에 올렸습니다. 휴머니즘의 토양에 심어져서 고전적인 라틴어 및 그리스어 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으며 인쇄기 및 열정적인 학생 단체의 최신 발명품과 결합하여 루터의 95가지 주제가 최초의 바이러스 텍스트가 되었음을 두고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교회는 여러 사회와 함께 존재해 왔으며 한동안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루터 이전 300년 전부터 유럽 전역의 여러 단체들이 계승된 전통 안에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꼭지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고 더 이상 이교도처럼 절멸될 수 없었던 루터(Luther)의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개혁의 주제는 완전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강조하고, 사람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경건의 실천을 단순화하는 일을 포함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이 개신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500년 동안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루터가 500 년 후에 오고 갔던 수천 개의 기독교 교단을 상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500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죽어 가고 있거나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것은 500년 후의 역사적인 각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매 500년마다 진화를 가져 왔을지라도, 살아남은 기독교의 측면이 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각각은 개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 예전Liturgy

첫 번째는 교회의 예전입니다. 제가 대학교 교목이었을 때, 캠퍼스에 있는 한 기독교 단체는 그들에게는 예전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새로운 학생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그들은 공동 고백의 기도와 교독문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물론 예전이지만 교회의 예전은 아닙니다.

예전은 예배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이며 일부 공동체는 예배에서 인쇄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지만 확실히 큰 의미에서 예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측 가능한 흐름을 고수합니다. 앞으로 500년 동안 교회와 함께 남아 있고 우리 장로교인들의 공헌으로 인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예전 의식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95개 논조를 발표한 직후, 그의 동시대인인 쯔빙글리 Huldrych Zwingli(1484~1531)는 스위스의 예전을 개혁하고, 신약성경을 설교하고 (lectio continua라고 부름), 성전의 미술품을 제거하며, 로마 미사를 단순화된 성만찬으로 대체함을 시작하였습니다.

존 칼뱅(John Calvin, 1509 ~ 1564)은 시편가(예배에 사용 된 시편)에 교회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예전 개혁에 기여하고 성만찬을 자주 갖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루터의 지도력 아래서 일어난 개혁과는 현저하게 다른 개혁의 흐름이 있었지만 "개혁주의"신학은 스코틀랜드에서 확고하게 심은 존 녹스 (1513~1572 년)의 관심을 사로 잡았습니다. 이 때 영국에서는 세 번째 흐름인 성공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98-1556)의 예전적인 개혁은 개혁주의 신학에 신학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오늘날 성공회와 성공회 교회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공동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기도문을 사용한 예전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164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개혁된 스코틀랜드의 우려를 반영하여 *공동 예배 모범*을 제작했습니다. 이 예배모범은 미국장로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현재 양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전 원본은 강력한 방식으로 교회와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크리스천 예배에서 가장 흔하고 영속적인 예전 텍스트인 "주기도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접근이 가능하고 정서적인 힘은 음악입니다. 이것이 칼뱅이 시편을 어린이 목소리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찬양 노래를 통해 예배에 기독교 대중음악을 도입한 것이 그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찬송가는 최소한 한 세대의 예배자를 위한 예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최근 찬송가인 *Glory to God*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축복이 될 강력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루터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500년 후인 교회는 *Glory to God*에 포함된 찬송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Glory to God*이 "찬송가 vs. 경배와 찬양" 및 "전통적인 본문 vs. 현대적인 노래"에 대한 토론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장로교인들에게 익숙해진 많은 찬송가를 보존하고 동시에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사랑하는 찬송가들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기존의 곡에 새로운 단어와 완전히 새로운 "시편, 찬송가, 및 영적 노래"를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3:16). *Glory to God*은 예배의 개혁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사실을 시간, 스타일, 및 문화를 아우르는 폭 넓은 음악 레퍼토리를 통해 인식합니다.

*Glory to God*에 의한 예배의 개혁은 그 음악과 가사의 넓은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 간증과 열매를 계속 짊어질 찬송가의 기본 신학적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목차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은혜와 감사"라는 개혁주의 신학적 강조점을 즉시 인식합니다.

찬송가는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며, 창조와 섭리, 여러가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의 지속적인 증언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칭찬, 성령과의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희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우리는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는 감사히 응답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섹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즉, 제가 예전에 대해 토론한 것처럼 말입니다. 500년 동안 교회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와 하나님의 봉사 생활을 위탁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신학Theology

그리고 이것은 장로교의 두 번째 지점으로 저를 안내합니다. 우리 장로교 유산은 앞으로 500년 동안 계속되는 개혁을 위한 교회에 우리의 신학을 제공합니다.

루터의 개혁 이니셔티브는 부분적으로 분열된 교회를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그의 비판을 다루기 위한 평의회를 소집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교황은 자신의 권위가 평의회에서 파생되거나 평의회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트렌트 공의회가 1537년에 마침내 15년 만에 소집되고 실제로 1545년에 시작될 때까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체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루터의 개혁 이니셔티브는 칼뱅만큼 빨리 또는 멀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칼뱅의 장로 교회 조직은 루터 교회보다 더 쉽게 수출되고 실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 교회는 교회와 제국의 위계 구조를 계속 닮았습니다.

이 두 가지 관찰은 개혁 신학의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500년 후에도 교회는 계속 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인은 중앙 교회의 권위를 피합니다. 즉, 우리는 감독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상황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증언자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왕이나 대통령과의 정치적 동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인들은 그들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그 맥락에 따라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 특징은 우리를 지난 500년 동안 충실하게 인도한 것과 같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고백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안수 서약의 고백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고 행하게 하는 것의 확실한 설명"과 같이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신앙고백서를 전달 받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신앙고백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맥락에서 신앙고백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그들의 글에서 인도하고, 성경의 충실한 해석의 전통을 더하고, 미래를 청취하는 교회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앙고백의 규율은 우리를 또 다른 500년 동안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장로교 예배의 기초가 되는 1645년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스코틀랜드 선조들처럼, 우리는 예배를 특정한 본문에 묶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오히려 형식을 제공하고 자유를 장려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습니다. 완전한 예전본을 갖고있는 우리의 *공동 예배서*에서도 항상 특정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견본 윤곽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채택한 "예배 모범"은 본질적으로 1984년판의 개정판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앙고백서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모범은 신앙의 맥락적 표현에 관한 신학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문맥에 따라 특정 공동체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단어, 이미지, 상징, 행동을 포함합니다."[[1]](#footnote-1)

500년 전 개혁 예배인도자들 사이의 관심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종교 개혁의 진화하는 지점들이 대표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뚜렷한 이해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의 특별한 표현 가운데는 성서의 권위와 전통과의 관계, 설교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집례할 성례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은 "문화"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적어도 명목상의 의미에서 기독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독교 예배가 특정한 문화 안에서 어떻게 진화되었고 어떤 문화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 문화가 어떻게 우리가 길을 잃어 버리게 만들었는지 깨닫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다른 문화권 안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그리스도인 증인을 붙잡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신앙고백서와 규례서에 있는 "예배 모범"에 반영된 이러한 인식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국 문화가 덜 기독교적이고 더 다원화되는 것을 목격 했으므로 이미 우리 시대에 이것을 봅니다. 500년 후에 문화적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 성례전The Sacraments

마지막으로, 향후 500년 동안 계속하여 교회를 갱신할 세 번째 종교 개혁의 주춧돌로서 성례전을 지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종자들을 단결시키려고 하신 식사가 우리를 분열하도록 가장 많이 행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러한 낙인은 종교 개혁 기간 동안 성례전 실천의 차이를 통해 형성된 당사자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루터의 95개 논조는 교황이 연옥(Purgatory)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여한 면제부 판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례전 신학에 대한 공격 이었지만, 그가 바벨론 포로 교회(1520)에서 평준화한 비판과 비교할 때, 성례전 제도의 완전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성례전의 수를 7 개에서 2 개로 줄임을 포함합니다.

같은 시기에, 츠빙글리는 취리히에 있는 다른 개혁자들과 합의하여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유아 세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조 중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개혁 이니셔티브를 차별화했습니다. 즉 구약에서의 할례와 비슷한 신약의 언약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을 통한 성인세례를 받은 사람은 재 침례교로서, 즉 이전에 유아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로 알려지게 됩니다.

후에 루터와 츠빙글리가 통일된 개혁을 위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성만찬을 제외한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루터교와 개혁 교단의 나뉨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성례전 신학은 교회에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초기부터 그리스도 공동체 의식을 둘러싼 긴장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나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바울은 너무 많은 세례식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불화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안도를 표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물 세례, 성령 세례, 및 안수를 베푸는 관계에 혼란이 있습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은 세례에 대한 논쟁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지위의 일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다른 이해는 11세기 서구 교회 간의 분열의 일부였고 성례전의 대안책은 종교개혁 이전의 모든 개혁의 시도에서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죄의 고백이 성례전인지 여부에 관해 토론하면서, 칼빈은 안수가 성례전이라고 주장 할 수 있었고, 마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는 견진성사 (confirmation)를 높게 다루었습니다.

성례전을 행함은 처음 두 지점 즉 전례와 신학의 연결 고리입니다. 신약 성경이 세례와 성만찬을 다루었기 때문에, 또는 신앙의식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성례전을 행함의 미래가 무엇이든 간에 교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는 최근의 신학적 대화의 기세가 더 큰 공동 성례전적 사역을 가진 미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사이의 완전한 교제를 인정하는 합의서의 20 주년을 맞이합니다. 2009년 우리 장로교인은 미국의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간의 세례에 대한 상호 인정에 처음으로 서명했습니다. 또한 연구와 대화가 계속됨에 따라 미래에 더 큰 융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 당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례전의 친교를 금지 한 이 주장들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위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인 제사장, 성인의 제자 형성, 그리고 고대 교회의 저술을 통하여 하나님 현존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성례전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를 분별하는 맥락에서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이러한 모든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종종 폭력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500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성례전의 사상과 실천의 상호 보완적인 본질에 대한 감사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체가 그 절정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 결론Conclusion

그리고 우리가 500년 동안 남아 있다면, 교회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여전히 예배와 신앙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이며 따라서 예전, 신학, 및 성례전 축하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장로교인들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영속적인 신실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 첫째로 우리가 받은 신앙(전통)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헌신하며, 둘째로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성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실에 대하여 짝을 이룬 두 가지 이해는 개혁되고 개혁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인은 그러한 개혁을 500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와 우리의 증인으로 보편적인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역을 위한 세 가지 지지점Fulcrums

대화를 시작하는 토론 질문들

Michelle Bartel, Charles Wiley, and Alicia Demartra-Pressley

1. 저자는 미사에 중점을 둔 로마 가톨릭 전통의 예배 흐름, 루터교의 전통과 단순한 성전 및 성경에 대한 강조, 시편에 중점을 두고 매주 성만찬을 나누는 개혁파 전통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참여한 회중들에게서 이 예배의 흐름과 다른 예배의 흐름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동일하게 남아있습니까?
2.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은혜와 감사의 리듬을 조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 3 쪽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행동과 신실한 응답의 이 패턴을 어디에서 보십니까?
	1. 성경에서?
	2. 회중의 삶에서?
	3. 당신의 삶에서?
3. 저자는 앞으로 500년 안에 교회의 표시 중 하나로서 성례전에 대한 분열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다양한 성례전 관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성례전 관습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성례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분열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4. 저자는 또한 향후 500년 안에 교회의 표시 중 하나가 성례전 관습이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개인 영적 성장과 형성과는 어떻게 중요합니까?
5. 저자가 관찰하는 개혁파 전통의 발전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활하고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에 훨씬 더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특별한 예를 사용하여,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더 충실한 증거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6. 예전에서?
7. 신학에서?
8. 성례전을 축하하며?
1. *규례서*, "예배 모범" 미국장로교 헌법 제3부 (켄터키 주 루이빌: 2015 총회 사무국) W-1.0304. [↑](#footnote-ref-1)